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SF 연준 총재 "올해 2차례 금리 인하...관세 물가 효과 줄어들 듯"

### [무역전쟁]

- WSJ: 트럼프, "8월 1일부터 캐나다산에 35% 관세 부과"
- Bloomberg: 베트남, 계속 미국과 관세 추가 인하 노력
- Reuters: 미국, 한국에 조선업 관련 중국에 대응 노력 원해
- Bloomberg: 트럼프 관세의 제조 활성화 예상 불구, 관세 리스크 여파 있어
- WSJ: 트럼프, 관세를 미국의 파워 수단으로 이용한다

### [전기차]

- YahooFinance: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받으려면 서둘러라

### [오일]

- WSJ: IEA, "세계 석유 공급량 예상보다 빨라" 전망

### [주택]

- Bloomberg: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, 5주 연속 하락 후 상승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골드만삭스, 월가에서 첫 자동 코더 시범 운영
- WSJ: Levi Strauss, 소비자 판매 회복으로 전망 상향 조정

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**Bloomberg: Fed's Daly Sees Two Cuts in 2025, Says Tariffs' Price Hit May Be Muted**

**SF 연준 총재 "올해 2차례 금리 인하.. 관세 물가 효과 줄어들 듯"**

-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올해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.
- 그는 회사들이 가격 분담을 위해 관계사들과 논의 중이며 가격 인상 상당 부분을 최종 소비자에 전달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.
- 한편,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인 Alberto Musalem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 효과가 일회성인지 보다 영구적인지는 곧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무역 전쟁]

**WSJ: Trump Threatens 35% Tariff on Some Canadian Goods**

## 트럼프, “8월 1일부터 캐나다산에 35% 관세 부과”

- 트럼프는 어제 목요일 저녁 8월 1일부터 캐나다 수입품에 31%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.
- 그러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(USMCA) 적용 제품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을 말했다.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.
- 캐나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관세 협상 마감일 전에 35% 관세 부과 서한을 받은 것이다. 이번 통보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캐나다 Mark Carney 총리는 관세 유예 마감일까지 계속 협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WSJ 기사

## Bloomberg: Vietnam Surprised by Trump Tariff Decision, Seeks Lower Rate

### 베트남, 계속 미국과 관세 추가 인하 노력

- 베트남은 트럼프로부터 20%의 관세 부과 방침을 전달받고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.
-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는 당초 10%~15%의 관세 부과를 위해 노력했었다. 향후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.
- 트럼프의 새로운 20% 관세는 기본 관세 10%를 대체하고 기존의 존재하는 다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.

Bloomberg 기사

## Reuters: US wants South Korea to join efforts to counter China in shipbuilding

### 미국, 한국에 조선업 관련 중국에 대응 노력 원해

- 한국의 고위 무역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향후 공동 노력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조선업 진흥 노력에 대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-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성길 무역통상국장은 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.
-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시장 점유율 상승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.
- 미국은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 자동차와 철강 관세 폐지나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는 것이다.

Reuters 기사

## Bloomberg: Trump's Tax Law Expected to Spur US Factory Investment

### But Tariffs Pose Risks

### 트럼프 관세의 제조 활성화 예상 불구하고, 관세 리스크 여파 있어

- 최근 통과된 트럼프의 세제 개혁법의 미 제조업체 비즈니스 세금 조항에는 장비와 공장 투자 시 첫해 세금을 100% 공제하는 ‘보너스 감가상각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에게는 고무적이라는 것.

- 이 같은 세금 혜택으로 인해 관련 회사들의 자본 투자가 용이해진다.
- 그러나 트럼프 관세로 생산 비용 상승 리스크가 있어 자본 투자 증가세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 **WSJ: Trump Doubles Down on Using Tariffs as Tool of American Power** 트럼프, 관세를 미국의 파워 수단으로 이용한다

- 트럼프는 브라질 정부가 전 대통령 Jair Bolsonaro의 재판을 근거로 브라질에 50%의 관세 부과를 통고했다. 그는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다.
- 트럼프는 수십 년 간의 관행을 뛰어넘어 관세를 무역 대응 조치가 아닌 정치적인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어 향후에 법적인 경제적인 반발의 리스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### [전기차]

#### **YahooFinance: Tesla, EV buyers need to act now if they want \$7,500 tax credit**

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받으려면 서둘러라

- 테슬라 등 전기차 구입에 관심 있는 소비자는 연방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한다.
- 올해 9월 30일까지만 새 전기차 7천5백 불, 중고 전기차는 4천 불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. 세제 개혁법 통과로 혜택이 조기에 종결된다.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.
- 이번 세제 공제가 사라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, 혼다 Prologue, 기아 EV9 등이다.
-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 된 모델인 테슬라 모델 Y는 9월말 이후부터 주와 지방 정부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는 가격이 3만7천5백 불에서 4만5천 불로 상승한다.

YahooFinance 기사

### [오일]

#### **WSJ: Global Oil Supply to Rise Faster Than Expected, IEA Says** IEA, “세계 석유 공급량 예상보다 빨라” 전망

- IEA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보다 세 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. 현재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.
-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 증가로 공급량은 하루 95만 배럴이 급증했다. 또한, 이스라엘- 이란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 우려가 커지자, 걸프 지역의 생산 업체들이 수출을 늘렸다.

- IEA는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 72만 4천 배럴에서 70만 4천 배럴로 하향 조정했는데,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. 무역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.
- IEA는 내년 석유 수요가 72만 2천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, 이는 OPEC이 전망한 하루 약 130만 배럴 증가 예상치보다 훨씬 낮다.

WSJ 기사

### [주택]

#### **Bloomberg: US Mortgage Rates Climb After Five Straight Weeks of Declines**

#### **미 주택담보대출 금리, 5주 연속 하락 후 상승**

-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. 30년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6.67%에서 6.72%로 상승했다.
- 주택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택 구매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, 여전히 높은 가격과 경제 불확실성이 부담을 주고 있어 주택 거래는 한동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7월 6일까지 4주간 주택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3.5% 감소했는데, 이는 2월 초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. 그러나, 주택 투어와 온라인 검색은 연초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# **CNBC: Goldman Sachs is piloting its first autonomous coder in major AI milestone for Wall Street**

#### **골드만삭스, 월가에서 첫 자동 코더 시범 운영**

- 골드만삭스가 AI 스타트업 회사 Cognition이 개발한 자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'Devin'을 테스트 중이다. Devin은 곧 골드만삭스의 12,000명의 인간 개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
- Devin은 세계 최초 AI 소프트 엔지니어인데, 최소한의 개입으로 많은 단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.
- 작년, JP모건을 포함한 주요 월가 기업들은 OpenAI 모델 기반 AI 인지 도우미를 출시했고, 이제는 에이전트형 AI가 등장했다. 전체 앱을 구축하고, 복잡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실행하는 Devin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낸다.
- 마이크로소프트 모회사 알파벳의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AI가 이미 전체 코드의 약 30%를 생성하고, 지난달에는 자사 업무의 최대 50%를 처리했다고 알려졌다.
- 이번 시범 운영은 기업 세계에서 AI가 얼마나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이다.

CNBC 기사

## **WSJ: Levi Strauss Raises Fiscal-Year Outlook on Resilient Direct- to-**

### **Consumer Sales**

### **Levi Strauss, 소비자 판매 회복으로 전망 상향 조정**

- 리바이스가 소비자 판매 회복에 힘입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. 기존에는 연간 1~2%의 매출 감소를 예측했지만, 이제는 1~2%의 성장을 예상한다.
- 리바이스 CFO Harmit Singh은 “소비자는 회복력이 강하다”고 말하며, 리바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 강조했다.
- 리바이스는 직접 소비자 대상(DTC) 사업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. 실제로, 리바이스의 직접 소비자 판매가 11% 증가해 현재 총수익의 50%를 차지하며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.
-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리바이스는 매장을 확대하고, 청바지 외 다양한 의류 카테고리를 생산하며, 마케팅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.
- 이와 같은 실적 개선 발표에 리바이스의 주가는 목요일 거래에서 8% 상승해 21.23달러를 기록했고, 올해 들어 14%의 상승세를 보였다.

WSJ 기사

### **[보고서]**

### **뉴욕증시 '관세 불확실성'에도 낙관론...S&P 500 최고치**

#### **나스닥도 최고치 경신...브라질 '폭탄관세' 예고에도 시장 면역 엔비디아 시총 4조달러 돌파 마감...델타항공, 실적 전망 상향에 급등**

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 위협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10일(현지시간)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고 마감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2.34포인트(0.43%) 오른 44,650.64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.20포인트(0.27%) 오른 6,280.46에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.33포인트(0.09%) 오른 20,630.67에 각각 마감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